잡지출판, 전문화 세분화한다

무크도 차별화 추세…의의 크나 시장 좁아 '생존'이 문제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91년도 한 해동안 총 6백60종의 잡지가 새로 등록된 반면 3백69종이 폐간됨으로써 우리나라 잡지계는 매일 평균 2종이 창간되고 1종이 폐간되는 극심한 부침현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간된 잡지들의 분야별 분포를 살펴볼 때, 전체적으로 전문지가 퇴조하고 대신 여성지를 비롯한 교양·문화지가 대거 창간된 점도 최근 잡지계의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지목하고 있다.

비록 통계수치만으로의 잡지 등록 및 폐간 실태분석의 결과이긴 하지만 이 두가지 사실은 모두 전문지의 전망을 어둡게 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학술적 성격을 띤 전문지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어두운 예상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학술전문지들은 점차 분야별로 세분화되는 한편 그 내용에 있어서도 환경문제, 농촌문제, 철학, 법학, 과학 등 사회 현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최초로 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 격월간지 「녹색평론」(녹색평론사)은 지난해 11, 12월호를 창간호로 선보인 일종의 '환경운동' 잡지. "녹색운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환경문제와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인문적 철학적 견지에서 검토 조명한다"는 편집 방향을 밝힌 이 잡지는, 서구의 환경운동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이론이나 이념에의 지나친 경사를 지양하고 환경오염의 구체적 실태나 그 극복대안 등을 제시한 국내외 논문과 서평, 문학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출판환경 자체가 열악한 지방에서 창간됐을 뿐 아니라 문학평론가 김종철교수(영남대 영문과)가 사재를 털어 혼자 힘으로 펴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환경문제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공간환경' 문제를 다룬 잡지도 선보여 관심을 끈다. 무크「공간과 사회」(공간환경연구회, 풀빛)가 그것으로 지역불균등발전, 도시토지 및 주거문제, 환경오염문제 등을 정치경제학적 방법론과 공간환경에 관련된 제 학문들간의 연계를 통해 풀어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간특집으로 마련된 지역불균등발전론을 주제로 한 논문들과 핵폐기물 처리문제, 그린벨트 완화문제 등 이 분야 초미의 관심사를 다룬 다양한 글들을 실었다.

창간과 폐간의 부침이 심한 잡지계의 불안정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학술전문지들은 점차 분야별로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철학, 법학, 과학분야는 물론 농촌문제, 환경문제까지 다루고 있는 이들 전문지는 사회 현안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학문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시장성 등 그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농촌문제를 집중조명한 잡지로는 계간지 「농민과 사회」(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길사)가 있다. 현재 통권 3호까지 펴낸 이 잡지는 "농업육성을 통한 농민의 인간적 삶의 실현과 도시·농촌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농촌뿐 아니라 어촌의 시급한 정치·경제·사회문제를 다각적으로 살피고 있다. 연구논문과 현장조사자료, 법률상담, 관련서적 소개, 체험기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학계와 의사,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농민들로 구성된 창간위원의 면모도 눈길을 끈다.

과학관련 전문지로 관심을 모으는 잡지로는 가장 최근에 창간된 「과학세대」(과학세대, 동녘)와 「과학과 철학」(과학사상연구회, 통나무)을 들 수 있다.

「과학세대」는 현대의 과학기술 성과를 발빠르게 전달하는 단순 정보지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사회적 성격을 직시하며 과학기술의 명암을 객관적으로 다루는" 과학비판적 성격의 잡지를 표방하고 있는 무크. 일제하 과학대중화운동과 해방 정국에서의 과학관련단체들의 활동을 더듬어 본 기획특집과 '민족과학론' '신과학' '급진과학' 등 과학기술의 본질을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논의들과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단체들의 현황 소개 등이 창간호의 주요 내용이다.

「과학과 철학」은 '과학과 철학의 회통'을 통해 새로운 과학사상을 모색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선보인 잡지로, 현대 과학기술문명의 위기를 동양철학과의 접목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극복한다는 신과학운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조선 후기가 정체와 쇠망의 시기였다는 통상적 견해를 깨고 이이, 허준, 정약용, 최한기 등에 의해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자연관의 모색이 시도됐음을 밝히는 조선후기 과학사상에 대한 논문들을 비롯해 마르크스주의 과학인식, 생명의 기원설에 대한 논문들이 제2집의 주요 내용.

대표적인 법학 전문지로 꼽을 수 있는 잡지로는 「법과 사회」(법과사회이론연구회, 창작과비평사)가 있다. 지난 89년 창간된 이 잡지는 87년 법학 전공의 소장 학자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법과사회이론연구회'를 모태로 "정치적 민주화의 실현에 기여하는 법학, 경제적 不正義의 시정에 기여하는 법학"을 추구하고 있다. 법현실과 법제도, 법이론에 두루 걸쳐 기존 법학과 법학자들의 태도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등의 '반민주적' 법률 개폐논의에서부터 남북한관계의 법적 조명, 국제인권보호제도, 교도행정, 헌법재판소 문제, 그리고 최신 법학분야인 법정보학에 이르기까지 법적 이론과 현실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

철학분야 단행본 종수의 증가와 함께 관련 잡지들도 적잖이 눈에 띄고 있다. 지난 90년 봄호를 창간호로 낸 계간지 「철학과 현실」(철학문화연구소)은 이들 중 가장 대중적인 성격을 띤 철학 전문지로 중견 철학교수들을 편집위원으로, 학술 논문보다는 '대중철학'을 위한 기본이론의 소개와 사회문제에 대한 철학적 해석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철학과 현실」에 비해 「시대와 철학」(한국철학사상연구회, 동녘)은 보다 진보적 성향의 철학지로 볼 수 있다. '과학적 세계관과 진보적 철학 연구'를 표방하며 창간된 이 잡지는 특히, 철학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는 서구 사회이론에 관심을 보이면서 사회주의권 변혁의 철학적 문제들에 자연스럽게 귀착하고 있다. 동양적 신비주의를 경계하는 일련의 신과학운동 비판이나 미셸 푸코의 '지식권력론' 등에 대한 관심 등도 이와 같은 성향을 잘 드러내준다.

잡지등록자유화 이래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잡지들 중 일군의 사회과학 전문지가 학술전문지의 대종을 이루었다면, 일정한 여과기간을 거친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영역이 보다 분화되어 말 그대로 본격적인 전문지의 시대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학술지의 성격을 띠면서도 대중성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 이즈음의 학술운동과도 궤를 같이 하면서 이들 잡지를 주목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지의 등장에 대해, 그 문제의식만으로 커다란 수확으로 받아들여졌던 몇년전과는 달리 이제는 이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표방하고 있는, 혹은 실제 담고 있는 내용이 특수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해도 그것이 잡지 형식을 취하는 이상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융합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이즈음의 전문지들이 바로 이전 사회과학 전문지의 편집체계를 답습함으로써 각 분야의 특성을 살린 고유의 편집체계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 학계의 각 분야별 성과가 더 많이 축적될수록 전문지는 더욱 세분화되리라는 낙관적 전망과 함께 영세성, 과다경쟁, 우수인력 확보난, 독자난으로 요약되는 잡지계 전반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교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소연 기자